

<p>[설교 말씀] 하박국 3:1~2</p>	<h1>말씀카드</h1>	<p>[설교 제목]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

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
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, 기도합니다.
하박국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, 1~2절이 그의 기도입니다.
어떤 기도였을까요?

첫 번째로 고난이 빨리 ()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

“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()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
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
공휼을 잊지 마옵소서” (합3:2)

하박국은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. 정확하게는 두려움입니다.
바벨론의 침공은 파괴적이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.
그러나 선지자는 그 침공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.
대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
백성이 빨리 깨닫고,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. 선지자는 거기까지 내다본 것입니다.

두 번째로 ()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

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.
하박국은 비록 이스라엘이 무너져도, 다시 새롭게 될 것이 믿어졌습니다.
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대로,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.

“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()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
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
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” (호6:1-2)

세 번째로 ()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.

공휼은 '라힘'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.
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핍니다.
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, 공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.

“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()에서 난 아들을 공휼히 여기
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” (사49:15)

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. 돌이키고, 회개하십시오.

【묵상 NOTE】

<p>[설교 말씀] 하박국 3:1~2</p>	<h1>말씀카드</h1>	<p>[설교 제목]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

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
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, 기도합니다.
하박국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, 1~2절이 그의 기도입니다.
어떤 기도였을까요?

첫 번째로 고난이 빨리 ()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

“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()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
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
공휼을 잊지 마옵소서” (합3:2)

하박국은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. 정확하게는 두려움입니다.
바벨론의 침공은 파괴적이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.
그러나 선지자는 그 침공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.
대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
백성이 빨리 깨닫고,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. 선지자는 거기까지 내다본 것입니다.

두 번째로 ()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

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.
하박국은 비록 이스라엘이 무너져도, 다시 새롭게 될 것이 믿어졌습니다.
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대로,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.

“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()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
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
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” (호6:1-2)

세 번째로 ()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.

공휼은 '라힘'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.
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핍니다.
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, 공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.

“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()에서 난 아들을 공휼히 여기
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” (사49:15)

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. 돌이키고, 회개하십시오.

【묵상 NOTE】